

유란시아서

<< [제 63 편](#) | [부분](#) | [내용](#) | [제 65 편](#) >>

제 64 편

진화하는 유색 인종

64:0.1 (718.1) 이 글은 거의 1백만 년 전에 **안돈**과 **폰타**의 시절부터, **행성 영주**의 시절을 거쳐 빙하 시대의 끝까지 살았던, **유란시아**의 진화 종족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64:0.2 (718.2) 인류는 생긴 지 거의 1백만 년이 되었고, 그 이야기의 처음 절반은 대체로 **유란시아**에서 **행성 영주** 이전 시절에 해당한다. 인류 역사의 후반은 **행성 영주**가 도착하고 여섯 유색 인종이 나타날 때에 시작되며, 대체로 보통 구석기 시대로 여기는 기간에 해당한다.

1. 안돈 토착민

64:1.1 (718.3) 원시인이 땅에서 진화하여 나타난 것은 1백만 년이 조금 못 되었고, 원시인은 격심한 체험을 겪었다. 원시인은 본능적으로 열등한 원숭이족과 섞이는 위험을 피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해수면에서 9,000미터 높이에 있는 건조한 **티벳**의 고지 때문에 원시인은 동쪽으로 이주할 수 없었다. 커진 지중해 때문에 남쪽이나

서쪽으로도 갈 수 없었는데, 지중해는 그때 동쪽으로 인도양까지 뻗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서 원시인은 전진하는 얼음에 부딪쳤다. 그러나 계속 이주하는 길이 얼음에 막혀 있을 때에도, 비록 흩어지는 부족들이 갈수록 적의를 가지게 되었어도, 좀더 영리한 집단들은, 지능이 열등하고 나무에서 사는, 털 많은 사촌들 사이에서 살려고 남쪽으로 갈 생각을 결코 품지 않았다.

64:1.2 (718.4) 사람이 가장 일찍 품는 종교적 감정 가운데 많은 것이 이 지리적 상황 — 오른쪽에 산, 왼쪽에는 바다, 앞에는 얼음 — 에 갇힌 환경에서 그가 무력하다는 느낌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진취적인 이 **안돈** 족속은 남쪽에 나무에서 사는 열등한 친척들에게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64:1.3 (718.5) 이 **안돈** 족속은 인간이 아닌 친척들의 버릇과 달리, 숲을 피했다. 숲에서 사람은 언제나 저하되었고, 인간의 진화는 반드시 오직 탁 트인 높은 위도 지방에서 앞으로 나아갔다. 흰히 트인 땅에서 부딪치는 추위와 배고픔은 행동과 발명과 주변머리를 자극한다. 이 **안돈** 부족이 이 혹독한 북쪽 기후에서 어려움과 결핍을 견디면서 현재 인류의 개척자를 기르고 있는 동안, 뒤떨어진 사촌들은 그들이 일찍이 공통으로 기원을 가졌던 땅, 남쪽 열대의 숲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다.

64:1.4 (718.6) 이 사건들은 제3 빙하 시대, 지리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첫째 빙하기에 일어났다. 처음 두 빙하는 북 **유럽**에서 널리 퍼지지 않았다.

64:1.5 (718.7) 빙하 시대의 대부분에 **잉글랜드**는 **프랑스**와 육지로 연결되었고, 한편 나중에 **아프리카**는 **시실리** 육지 다리로 **유럽**과 붙어 있었다. **안돈** 족속이 이주하던 때에, 서쪽에 **잉글랜드**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 동쪽에 **자바**까지 이어진 육로가 있었다. 그러나 **오스트랄리아**는 다시 고립되었고, 이것은 그 자체의 특이한 동물상의 발전을 더 강화했다.

64:1.6 (719.1) 950,000년 전에, **안돈**과 **폰타**의 후손은 동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멀리 옮겨 갔다. 서쪽으로, 그들은 **유럽**을 지나서 **프랑스**와 **잉글랜드**까지 갔다. 후일에 동쪽으로 **자바**까지 멀리 파고들었고, 거기서 그들의 뼈 — 소위 **자바인** — 이 아주 최근에 발견되었으며, 다음에 **타스마니아**까지 줄곧 여행했다.

64:1.7 (719.2) 서쪽으로 가는 집단은 동쪽으로 가는 집단보다, 같은 조상에서 비롯한 뒤떨어진 혈통에 적게 오염되었다. 동쪽 집단은 더딘 동물 사촌들과 아주 자유롭게 섞였다. 진취성이 없는 이 사람들은 남쪽으로 흘러갔고, 당장에 열등한 부족들과 짝지었다. 나중에, 그들의 잡종 후손의 커지는 무리가 북쪽으로 돌아와서, 급히 확장하는 **안돈** 종족과 짝지었고, 그러한 유감스러운 연합은 우수한 핏줄을 어김없이 저하시켰다. **숨을 주시는 이**의 숭배를 유지하는 원시 촌락들이 자꾸 줄어들었다. 일찍 있었던 이 초기 문명은 절멸의 위협을 받았다.

64:1.8 (719.3) **유란시아**에서는 늘 이와 같았다. 우수한 자가 열등한 자와 자유롭게 번식하도록 버려두는 어리석음 때문에, 큰 장래를 가진 문명이 잇달아 퇴화했고 마침내 소멸되었다.

2. 폭스홀 종족

64:2.1 (719.4) 900,000년 전에 **안돈**과 **폰타**의 예술과 **오나가**의 문화는 지구의 표면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문화 · 종교, 그리고 부싯돌

이용조차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64:2.2 (719.5) 이때는 큰 무리의 열등한 잡종 집단이 **프랑스** 남부로부터 **잉글랜드**로 도착하던 시절이었다. 이 부족들은 원숭이 같은 숲의 생물과 아주 널리 섞여서, 거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무 종교도 없었지만, 서툴게 부싯돌을 쓸 줄 알았고, 불을 지피기에 충분한 지능을 소유했다.

64:2.3 (719.6) **유럽**에서 그들 뒤에 얼마큼 우수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 민족이 따라왔는데, 이들의 후손은 북쪽에 얼음으로부터 남쪽에서 **알프스**와 지중해까지 대륙 전체에 곧 퍼졌다. 이 부족들이 이른바 **하이델버그** 인종이다.

64:2.4 (719.7) 문화가 퇴폐하던 이 오랜 기간에, **잉글랜드**의 **폭스홀** 종족, 그리고 인도의 북서쪽에 있던 **바도난** 부족들은, **안돈**의 전통을 더러, 그리고 **오나가** 문화의 어떤 잔재를 계속해서 간직했다.

64:2.5 (719.8) **폭스홀** 종족은 가장 서쪽에 있었고, **안돈** 문화의 많은 것을 간직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또한 부싯돌 이용하는 지식을 보존했고, 이것을 후손, 곧 **에스키모**의 옛 조상에게 전해주었다.

64:2.6 (719.9) **폭스홀** 종족의 유물이 **잉글랜드**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도, 이 **안돈** 족속은 정말로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산 사람들이었다. 당시에 육지 다리는 아직도 **프랑스**를 **잉글랜드**와 연결했고, **안돈** 후손이 살던 초기 촌락의 대부분이 그 옛날의 강과 바닷가를 따라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 촌락들은 이제 영국 해협과 북해의 바다 밑에 있다. 그러나 서넛은 아직도 **잉글랜드** 해안에, 물 위에 나와 있다.

64:2.7 (720.1) **폭스홀** 종족 가운데 좀더 머리가 있고 영적인 자들의 다수는 그들의 종족 우수성을 유지하고 원시 종교 관습을 지속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후일의 혈통과 나중에 섞임에 따라서, 후일에 얼음이 찾아온 뒤에 **잉글랜드**에서 서쪽으로 계속 여행했고, 오늘날의 **에스키모**로서 살아남았다.

3. 바도난 부족

64:3.1 (720.2) 서쪽에 있는 **폭스홀** 종족 외에도, 분투하는 또 다른 문화 중심이 동쪽에 버티고 있었다. 이 집단은 **안돈**의 고손(高孫), **바도난**의 부족 사이에, 인도의 북서 고지의 언덕 지대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희생물로 한 번도 바치지 않은, **안돈**의 유일한 후손이었다.

64:3.2 (720.3) 이 고지의 **바도난** 사람들은 널리 펼쳐진 고원을 차지했는데, 이 고원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내들이 가로지르고 사냥감이 풍부했다. **티벳**에 있는 그들의 어떤 사촌들처럼, 그들은 투박한 돌 오두막, 언덕가의 석굴, 그리고 반(半) 지하 통로에서 살았다.

64:3.3 (720.4) 북쪽의 부족들은 갈수록 더 얼음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그들이 기원이 있던 고향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물을 지나치게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반도가 차츰차츰 대양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반도가 몇 번이나 솟아났는데도, 바다의 위험과 이따금 바다에 잠기는 두려움에 관하여 이 원시 종족의 전통이 생겨났다. 이 두려움은, 강물이 넘치는 체험을 겪은 것과 함께, 어째서 그들이 살기에 안전한 장소인 고지(高地)를 찾았는가 설명한다.

64:3.4 (720.5) **바도난** 종족의 동쪽에, 인도 북부의 **시왈릭** 산에서, 땅에서 어느 다른 부류보다, 사람과 여러 가지 인간 이전 집단 사이의 과도기 종류에 더 가까운 화석(化石)을 발견할 수 있다.

64:3.5 (720.6) 850,000년 전에 우수한 **바도난** 부족들은 열등하고 짐승 같은 이웃들을 몰살하는 전쟁을 시작했다. 1천 년 안에, 이 지역에 있던 어중간한 짐승 집단의 대부분이 살해되거나 남쪽 숲으로 밀려갔다. 열등한 자를 근절시키는 이 투쟁은 그 시대에 산에서 살던 부족들 가운데서 조금 개선을 가져왔다. 이 개량된 **바도난** 혈통의 혼합 후손들이, 겉보기에는 새로운 민족 — **네안데르탈** 종족 — 으로서 활동 무대에 등장했다.

4. 네안데르탈 종족

64:4.1 (720.7)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용사였고, 널리 여행했다. 그들은 인도 북서쪽에 있는 고지의 중심들로부터 차츰차츰 서쪽으로 **프랑스**까지, 동쪽으로 중국까지, 또 밑으로 북 **아프리카**까지도 퍼졌다. 그들은 진화하는 유색 인종들이 이주할 때까지, 거의 5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

64:4.2 (720.8) 800,000년 전에는 사냥감이 풍부했다. 코끼리와 하마만 아니라, 여러 종의 사슴이 **유럽**을 돌아다녔다. 가축은 풍부했고, 말과 이리가 어디에나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프랑스**에 있는 부족들은 가장 성공한 사냥꾼에게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주는 풍습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64:4.3 (721.1) 사슴은 이 **네안데르탈** 종족에게 상당히 쓸모가 있었고, 먹을거리와 옷으로서, 또 연장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그들이 뿔과 뼈를 여러 용도에 썼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의 문화가 없었지만, 거의 **안돈** 시절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부싯돌 작업을 크게 개량했다. 나무 손잡이에 붙인 큰 부싯돌이 다시 쓰이게 되었고, 도끼와 곡괭이로 사용되었다.

64:4.4 (721.2) 750,000년 전에 넷째 빙상이 남쪽으로 한참 진행하였다. 개량된 도구로 **네안데르탈**인은 북쪽의 강을 덮는 얼음에 구멍을 뚫고, 이 공기 구멍으로 올라온 물고기를 창으로 찌를 수 있었다. 언제나 이 부족들은 다가오는 얼음 앞에서 물러났는데, 이때 얼음은 가장 널리 **유럽**을 침공했다.

64:4.5 (721.3) 이 시절에 **시베리아** 빙하는 가장 남쪽으로 행진하고 있었고, 원시 인간으로 하여금, 기원이 있던 땅을 향하여 도로, 남쪽으로 움직이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인간종은 아주 분화되어서, 진보하지 않는 원숭이 친척들과 더 섞일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

64:4.6 (721.4) 700,000년 전에 넷째 빙하,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가 물러가고 있었다. 사람과 동물은 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기후는 서늘하고 축축했고, 원시인은 다시 **유럽**과 서 **아시아**에서 번성했다. 차츰차츰 숲은 아주 최근에 빙하에 덮였던 땅 위로, 북쪽으로 퍼졌다.

64:4.7 (721.5) 포유동물 생명은 큰 빙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포유동물은 얼음과 **알프스** 사이에 놓인 좁은 지대에서 버티었고, 빙하가 물러나자, 다시 온 **유럽**에 재빨리 퍼졌다. **아프리카**에서, **시실리** 육지 다리 위로, 곧은 엄니를 가진 코끼리, 코가 넓은 코뿔소,

하이에나, **아프리카** 사자가 도착했고, 이 새로운 여러 동물은 검치를 가진 호랑이와 하마를 거의 멸종시켰다.

64:4.8 (721.6) 650,000년 전에는 따듯한 기후가 계속되는 것이 보였다. 간빙기(間氷期)의 중간이 되자, 날씨가 무척 따듯해져서 **알프스**는 얼음과 눈을 거의 벗어 버렸다.

64:4.9 (721.7) 600,000년 전에 얼음은 그때 가장 북쪽의 후퇴점에 이르렀고, 몇천 년 동안 쉬고 난 뒤에, 다시 남쪽으로 다섯 번째 나들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5만 년 동안 기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유럽**의 사람과 동물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전기에 있던 약한 건조성이 줄어들었고, **알프스**의 빙하는 강 유역까지 멀리 내려왔다.

64:4.10 (721.8) 550,000년 전에 진행하던 빙하는 다시 사람과 동물을 남쪽으로 밀었다. 그러나 이때 사람은 넓은 지대에서 넉넉히 여지가 있었는데, 이 지대는 북동쪽으로 **아시아**로 뻗고, 빙상과 당시에 지중해의 크게 확대된 흑해(黑海) 연장 부분 사이에 놓여 있었다.

64:4.11 (721.9) 넷째와 다섯째 빙하가 있던 시절에 **네안데르탈** 종족의 투박한 문화가 더욱 퍼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진보가 거의 없어서, 참으로 **유란시아**에서 새롭고 수정된 종류의 지적 생명을 만들려는 시도가 마치 실패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거의 25만 년 동안 이 원시 민족들은 떠돌아 다니고, 사냥하고, 싸우며, 잠시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졌지만, 대체로, 그들의 우수한 **안돈** 조상과 비교해서 꾸준히 퇴보하고 있었다.

64:4.12 (721.10)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에, 미신을 믿는 인류의 문화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네안데르탈**인은 부끄러운 미신을 넘어서,

정말로 아무 종교가 없었다. 그들은 구름, 특히 얇거나 짙은 안개를 죽는 듯이 무서워했다. 자연력을 두려워하는 원시 종교가 차츰 개발되었고, 한편 풍부한 사냥감과 아울러, 연장의 발전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거리에 대해 걱정을 덜하고 살 수 있게 만들자, 동물 숭배는 줄어들었다. 사냥감 쫓기를 여자로 보상하는 것은 사냥 솜씨를 크게 개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새로운, 두려움의 종교는 자연력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달래려는 노력으로 이끌었고,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자연력을 달래려고 인간을 바치기에 이르렀다. **유란시아**에서 뒤쳐진 인종들은 사람을 잡아 바치는 이 끔찍한 풍습을 바로 20세기까지 지속시켰다.

64:4.13 (722.1) 이 초기 **네안데르탈인**은 도저히 태양 숭배자라고 부를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어둠을 무서워하며 살았고, 밤이 오는 것을 죽는 듯 두려워했다. 달이 조금 비치기만 하면, 그럭저럭 지냈다. 그러나 달이 어두울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달이 다시 비치도록 유인(誘引)하려는 노력으로 그들 가운데 표본이 되는 가장 나은 남자와 여자를 잡아 바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양이 정기적으로 돌아올 것을 일찍이 배웠지만, 달은 오로지 그들이 동료인 부족 사람을 잡아 바쳤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종족이 진보함에 따라서, 희생의 대상과 목적이 점진적으로 바뀌었지만, 종교 예식의 일부로서, 인간을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5. 유색 인종의 기원

64:5.1 (722.2) 500,000년 전에, 인도의 북서 고지에서 살던 **바도난** 부족들은 또 다른 큰 종족 싸움에 말려들었다. 1백 년이 넘도록 이

무자비한 전쟁이 격렬하게 계속되었고, 그 오랜 싸움이 끝났을 때, 겨우 약 1백 가구가 남았다. 그러나 이 생존자들은 당시에 살아 있던, **안돈과 폰타**의 모든 후손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바람직한 자들이었다.

64:5.2 (722.3) 이제, 이 고지의 **바도난**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에 사람이 거하는 고지 지역의 동북부에서 살고 있던 한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특별히 영리한 집단의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다. 이것이 산각 가족이었고, **유란시아**의 여섯 유색 인종 모두를 낳은 조상이었다.

64:5.3 (722.4) 이 **산각** 아이들은 19명이었는데, 동료들보다 머리가 더 좋았을 뿐 아니라, 살갗이 태양 빛에 노출되고 나서 여러 색깔로 바뀌는 독특한 성향을 나타냈다. 이 아이들 19명 가운데, 다섯은 붉고, 둘은 오렌지 색이고, 넷은 누르고, 둘은 풀빛이고, 넷은 푸르고, 둘은 남빛이었다. 이러한 색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자 더욱 뚜렷해졌고,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동료 부족 사람들과 짝지었을 때, 그 자손은 모두 **산각** 부모의 피부색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64:5.4 (722.5) 이 무렵에 **행성 영주**가 도착한 것을 지적인 뒤에, 나는 이제 연대순의 이야기를 중지하고, 그동안에 우리는 **유란시아**의 여섯 **산각** 인종을 따로 고려한다.

6. 유란시아의 여섯 산각 인종

64:6.1 (722.6) 보통의 진화하는 행성에서는, 진화하는 여섯 유색 인종이 하나씩 나타난다. 홍인(紅人)이 먼저 진화하고, 뒤잇는 유색 인종들이 나타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돌아다닌다. **유란시아**에서 모두

여섯 인종이 동시대에, 그것도 한 가족 안에서 태어난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64:6.2 (723.1) **유란시아**에서 이전에 **안돈**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사타니아에서 새로운 일이었다. 지역 체계의 어느 다른 세계에서도,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 종족이 진화하는 유색 인종보다 먼저 진화하지 않았다.

64:6.3 (723.2) 1. **홍인**. 이 민족은 인류에서 놀라운 종이요, 여러 면에서 **안돈**과 **폰타**보다 우수했다. 그들은 가장 총명한 집단이었고, **산각** 아이들 중에서 처음으로 부족의 문명과 정부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일부일처(一夫一妻) 주의를 지켰다. 그들의 혼합된 후손들도 한 사람을 여럿과 짝짓는 일이 드물었다.

64:6.4 (723.3) 후일에 그들은 **아시아**에서 황인 형제들과 심각하고도 오래 지속된 분쟁이 있었다. 그들은 일찍부터 활과 화살의 발명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조상의 성향을 많이 물려받았고, 이것이 그들을 너무 약화시켜서 황인 부족들은 **아시아** 대륙에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다.

64:6.5 (723.4) 약 8만 5천 년 전에, 홍인종의 비교적 순수한 나머지가 떼를 지어 북 **아메리카**로 건너갔는데, 그 뒤에 얼마 안 되어 **베링** 지협이 가라앉았고, 이렇게 그들을 고립시켰다. 아무 홍인도 **아시아**로 돌아온 적이 없다. 그러나 **시베리아**, 중국, 중앙 **아시아**, 인도, **유럽**의 전역에 걸쳐서 그들은 다른 유색 인종들과 섞인 혈통을 많이 뒤에 남겼다.

64:6.6 (723.5)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홍인은 초기에 기원을 가진 많은 가르침과 전통을 가지고 갔다. 홍인의 직계 조상은 **행성 영주**의 세계 본부가 후일에 벌인 활동과 전에 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두 **아메리카**에

이르고 난 뒤 짧은 시일 안에, 홍인들은 이 가르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지적·영적 문화가 크게 쇠퇴하였다. 오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끼리 아주 맹렬히 싸움에 빠져서, 이 부족 전쟁은 비교적 순수한 홍인의 이 잔재가 급속히 멸망하게 만들 것처럼 보였다.

64:6.7 (723.6) 이렇게 크게 퇴보했기 때문에 홍인은 망한 듯했는데, 약 6만 5천 년 전에, **오나모나론톤**이 지도자요 영적 구원자로서 나타났다. 그는 **아메리카** 홍인들 사이에서 일시적 평화를 가져왔고, “큰 영”의 숭배를 부활시켰다. **오나모나론톤**은 96살까지 살았고, **캘리포니아**의 큰 세쿼이아 나무들 사이에서 본부를 유지했다. 후일에 그의 자손의 다수가 **블랙 푸트 인디안** 사이에서 현대까지 내려왔다.

64:6.8 (723.7) 시간이 지나자, **오나모나론톤**의 가르침은 어렵פות한 전통이 되어 버렸다. 서로 죽이는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 위대한 선생이 있던 시절 이후로, 결코 또 다른 지도자가 그들 사이에 보편적 평화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총명한 축에 속하는 혈통이 이 부족 싸움에서 자꾸 이슬로 사라졌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능하고 총명한 이 홍인들이 북 **아메리카** 대륙에서 위대한 문명을 세웠을 것이다.

64:6.9 (723.8) 중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뒤에, 북부의 홍인은 백인에게 나중에 발견될 때까지, 다시는 결코 다른 세계 영향과 (**에스키모**를 빼고) 접촉을 가지지 않았다. 홍인이 후일에 **아담** 혈통과 섞여서 개량될 기회를 거의 완전히 놓쳐 버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홍인은 백인(白人)을 다스릴 수 없었고 기꺼이 백인을 섬기려 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 종족이 섞이지 않으면, 둘 가운데 하나가 망한다.

64:6.10 (723.9) 2. 주황인. 이 종족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나 세우려는 충동, 또 모든 것을 세우려는 특이한 충동이었고, 단지 어느 부족이 가장 큰 무더기를 만들 수 있는가 보려고 광대한 돌무더기를 쌓기도 했다. 비록 진취적 민족은 아니었어도, 그들은 **영주**의 여러 학교로부터 큰 이익을 얻었고, 교육을 받으려고 대표들을 거기로 보냈다.

64:6.11 (724.1) 주황 민족은 지중해가 서쪽으로 물러 감에 따라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향해서 남쪽으로 해안선을 따라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아프리카**에서 유리한 발판을 확보하지 못했고, 나중에 도착하는 녹색 종족에게 멸종이 되었다.

64:6.12 (724.2) 끝이 오기 전에, 이 민족은 많은 문화적, 영적 바탕을 잃었다. 그러나 이 불행한 민족의 뛰어난 지도자 **포순타**가 현명하게 지휘한 결과로서 높은 생활이 크게 부흥되었으며, 그는 약 30만 년 전에 그들의 본부가 **아마겟돈**에 있었을 때, 그들을 보살폈다.

64:6.13 (724.3) 주황인과 녹색인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에집트의 나일** 강 유역 하류 지방에서 일어났다. 오래 끈 이 전쟁이 거의 1백 년 동안 지속되었고, 싸움이 끝났을 때 주황 민족의 극소수가 살아남았다. 이 사람들의 산산이 흩어진 잔재는 녹색인에게, 그리고 나중에 도착하는 남색인에게 흡수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종족으로서 주황인은 10만 년쯤 전에, 존재를 그쳤다.

64:6.14 (724.4) 3. 황인. 원시의 황인 부족들은 처음으로 사냥을 그만두고, 안정된 공동체를 세우고, 농업에 바탕을 둔 가정 생활을 개발했다. 지능 면에서 그들은 얼마큼 홍인보다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집단으로, 종족의 문명을 육성하는 문제에서 모든 **산각** 종족보다 우수한 것을 입증했다. 형제 정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 부족이 비교적 평화로운

가운데 함께 살기를 배웠고, **아시아**로 차츰 확장함에 따라서, 그들 앞에 있는 홍인종을 몰아낼 수 있었다.

64:6.15 (724.5) 그들은 세상의 영적 본부의 영향이 미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갔고, **칼리가스티아** 배반이 있고 나서 큰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다. 그러나 이 민족 사이에서 한 번 밝은 시대가 있었는데, 약 10만 년 전에 **싱랑톤**이 이 부족들의 지도권을 맡고서 “**하나의 진실**”을 숭배할 것을 선포하였다.

64:6.16 (724.6) 황인종이 비교적 큰 무리로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부족 사이에 평화를 지켰기 때문이다. **싱랑톤**의 시절부터 현대 중국의 시기까지, 황인종은 **유란시아**의 민족들 중에서 평화로운 축에 속했다. 이 종족은 나중에 들어온 **아담** 혈통의 유산, 적지만 강력한 유산을 받았다.

64:6.17 (724.7) 4. **녹색인**. 녹인종(綠人種)은 원시인 가운데 능력이 뒤떨어지는 집단 중의 하나였고,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널리 이주함으로 크게 약화되었다. 흩어지기 전에, 이 부족들은 약 35만 년 전에, **판타**의 지도 밑에서 크게 문화의 부흥을 겪었다.

64:6.18 (724.8) 녹인종은 크게 세 가지로 갈라졌다. 북쪽 부족은 황인종과 청인종에게 정복되고 노예가 되고 흡수되었다. 동쪽 집단은 그 시절의 인도 민족과 혼합되었고, 그 잔재가 아직도 그들 사이에 남아 있다. 남쪽의 민족은 **아프리카**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들은 거의 똑같이 열등한 주황 사촌들을 멸망시켰다.

64:6.19 (724.9) 여러 면에서 이 두 집단은 이 싸움에서 비슷하게 겨루었는데, 이는 각자가 거인 계급의 혈통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들의 많은 지도자는 키가 240에서 270센티미터나 되었다. 이 녹색인의 거인 혈통은 이 남쪽 나라, 곧 **에집트** 국가에 대체로 국한되었다.

64:6.20 (725.1) 승리한 녹색인의 나머지는 나중에 남인종(藍人種)에게 흡수되었고, 이 남색인은 종족이 분산된 최초의 **산각** 중심에서 마지막으로 발전하고 이주한 유색 민족이었다.

64:6.21 (725.2) 5. **청인**. 청인은 위대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창을 발명했고, 나중에 현대 문명에 쓰이는 많은 기술의 초보를 알아냈다. 청인은 황인이 가진 혼 및 감정과 함께, 홍인의 두뇌력을 소유했다. **아담**의 후손은 후일에 지속한 어떤 유색 인종보다 이들을 더 좋아했다.

64:6.22 (725.3) 초기의 청인(靑人)은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참모진에 속한 선생들의 설복에 반응했고, 배반한 그 지도자들이 나중에 왜곡한 가르침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다. 다른 원시 종족들처럼 그들은 **칼리가스티아** 배반으로 빚어진 소동으로부터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성질을 결코 완전히 극복하지도 못했다.

64:6.23 (725.4) **칼리가스티아**가 몰락한 뒤 약 5백 년이 되어, 원시 종류의 — 그래도 참되고 유익한 — 배움과 종교의 부흥이 널리 일어났다. **올란도프**가 청인종 사이에서 큰 선생이 되었고, 많은 부족을 “**최고 우두머리**”라는 이름 아래 참 **하나님**의 숭배로 돌아가도록 이끌었다. 후일에 이 종족이 **아담** 혈통과 혼합함으로 아주 크게 개선되는 시절까지, 이것은 청인이 이룩한 가장 큰 진보였다.

64:6.24 (725.5) **유럽**의 구석기 시대에 관한 연구와 탐구는 대체로 이 고대의 청인의 연장 · 뼈 · 공예품을 발굴하는 것과 상관된다. 이른바 **유란시아**의 **백인종**은 이 청인의 후손이며, 처음에 황인과 홍인이 조금 섞여 수정되고, 나중에 보라종의 큰 부분을 동화함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64:6.25 (725.6) 6. 남인종. 홍인이 모든 **산각** 종족 가운데 가장 진보한 것처럼, 흑인은 진취성이 가장 떨어졌다. 그들은 고지의 고향에서 마지막으로 이주하였다. **아프리카**로 여행해서 그 대륙을 점령했고, 대대로 노예로서 강제로 옮겨졌을 때를 제외하고, 그 뒤로 늘 거기에 남아 있었다.

64:6.26 (725.7) **아프리카**에서 고립되어서, 남색인 종족들은 홍인과 마찬가지로, **아담** 혈통의 주입으로 얻었을 종족 향상을 거의 또는 전혀 얻지 못했다. 그들은 **오르보논**의 시절에 크게 영적 각성을 체험했고, 그때까지 **아프리카**에서 홀로 남인종은 거의 진보하지 않았다.

오르보논이 부르짖은 “신 중의 신”을 나중에 거의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알지 못하는 이를 숭배하는 소망을 전적으로 잃지는 않았다. 적어도 몇천 년 전까지 그들은 일종의 숭배를 유지했다.

64:6.27 (725.8) 뒤쳐져 있지만 이 남색인 종족들은 하늘의 권력 앞에서 어느 다른 지상 종족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64:6.28 (725.9) 이 시대는 여러 종족 사이에서 격심한 투쟁이 있던 시대였으나, **행성 영주**의 본부 가까이에서 좀더 깨우치고 최근에 가르침을 받은 여러 집단은 비교적 화평한 가운데 함께 살았다. 하지만 **루시퍼** 반란이 터짐으로 이 체제가 심각하게 혼란을 겪을 때까지, 세계 종족들은 아무런 큰 문화적 업적을 이룩하지 않았다.

64:6.29 (726.1) 이 다른 민족들은 모두, 때때로 문화적 · 영적 부흥을 체험하였다. **만산트**는 **행성 영주** 이후 시대에 큰 선생이었다. 그러나 한 종족 전체에게 두드러지게 영향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킨 뛰어난 지도자와 선생들만 여기에 언급된다. 시간이 지나자, 다른 지역에서 작은 선생들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칼리가스티아** 반란이 터지고 나서 **아담**이 도착하기까지 길고도 어두운 시대에, 그들은 합쳐서, 문화적

문명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방지했던 유익한 총합 영향력에 크게 이바지했다.

64:6.30 (726.2) 공간 세계에서 셋 또는 여섯 유색 인종을 진화시키는 계획에는 좋고도 충분한 이유가 많이 있다. 비록 **유란시아** 필사자가 이 모든 이유를 넉넉히 헤아릴 처지에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음을 지적하고 싶다:

64:6.31 (726.3) 1. 다양성은 자연 도태(淘汰)가 널리 작용하기 위하여, 우수한 혈통이 구별되어 살아남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필수이다.

64:6.32 (726.4) 2. 다른 민족들이 우수한 유전 인자(因子)를 보유할 때, 이 다양한 민족들을 서로 교배함으로 더 힘세고 나은 민족을 얻게 된다. 우수한 **아담** 혈통과 철저하게 섞임으로 하나의 합동 민족을 나중에 효과적으로 개량할 수 있었다면, **유란시아** 종족들은 그렇게 일찍 섞임으로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한 실험을 현재의 종족 조건 밑에서 **유란시아**에서 실행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파괴적일 것이다.

64:6.33 (726.5) 3. 종족을 다양화함으로 건전하게 경쟁을 자극한다.

64:6.34 (726.6) 4. 종족 지위의 차이, 그리고 각 종족 안에서 생기는 집단 지위의 차이는 인간의 관용과 이타주의가 발달하는 데 필수이다.

64:6.35 (726.7) 5. 진화 세계의 민족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영적으로 발전할 때까지, 인종의 동질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7. 유색 인종의 분산

64:7.1 (726.8) **산깁** 가족의 유색 후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인접한 영토로 확장할 기회를 찾는 동안, 다섯째 빙하, 지질학 계산으로는 셋째 빙하가, **유럽**과 **아시아** 위로 남쪽을 향하여 한창 떠내려 가고 있었다. 이 초기의 유색 인종들은 그들이 태어난 빙하 시대의 혹독함과 곤경으로 특별히 단련을 받았다. 이 빙하가 **아시아**에서 아주 널리 퍼져서, 몇천 년 동안 동 **아시아**로 이주하는 길이 막혀 버렸다. 그리고 **아라비아**가 높아진 결과로서 지중해가 나중에 물러날 때까지, 그들이 **아프리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64:7.2 (726.9) 이처럼 거의 10만 년 동안 이 **산깁** 민족들은 산기슭 언덕 근처에 퍼졌고, 다른 민족들 사이에 특이하지만 자연스러운 싫은 감정이 일찍 나타났는데도, 얼마큼 서로 섞였다.

64:7.3 (726.10) **행성 영주** 시절과 **아담** 시절 사이에, 인도는 지구의 표면에서 일찍이 발견된 바 가장 국제적 인구의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혼합은 녹색인 · 주황인 · 남색인 종족을 아주 많이 품게 되었다. 이 2차 **산깁** 민족들은 남쪽 땅에서, 살기가 더 쉽고 편안함을 발견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나중에 **아프리카**로 옮겨 갔다. 1차 **산깁** 민족들, 곧 우수한 민족들은 열대 지방을 피했다. 홍인은 북동쪽으로 **아시아**로 갔고, 황인이 그 뒤를 바짝 따라갔으며, 한편 청인은 북서쪽으로 **유럽**으로 이주했다.

64:7.4 (727.1) 홍인은 후퇴하는 얼음의 뒤를 쫓아서, 일찍 북동쪽으로 옮겨 가기 시작했고, 인도의 고지 둘레를 지나면서, **아시아**의 동북부를

모두 차지했다. 그들 뒤에 황인 부족들이 바짝 따라갔고, 이들은 나중에 홍인을 **아시아**에서 북 **아메리카**로 몰아냈다.

64:7.5 (727.2) 비교적 순수한 핏줄의 홍인종 잔재가 **아시아**를 버렸을 때 11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7천 명이 조금 넘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었다. 이 부족들에게 혼합된 조상을 가진, 작은 세 집단이 따라왔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것은 주황인과 청인 종족의 조합이었다. 이 세 집단은 결코 홍인과 완전히 친하지 않았고, 남쪽으로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로 일찍 떠나갔으며, 거기서 그들은 나중에 황인과 홍인의 작은 혼합 집단과 합쳐졌다. 이 민족들은 모두 서로 결혼했고, 융합된 새 민족을 세웠으며, 이 민족은 순수한 핏줄의 홍인보다 싸움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5천 년 안에 이 융합된 민족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고,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남 **아메리카**에서 각자 문명을 세웠다. 남 **아메리카**의 가지는 **아담**의 피를 약간 받기는 했다.

64:7.6 (727.3) 어느 정도까지, 초기의 홍인과 황인은 **아시아**에서 섞였고, 이 연합으로 생긴 자손은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 바닷가를 따라서 떠나갔는데, 결국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황인종에게 반도와 근처 바다의 섬들로 밀려났다. 그들은 오늘날의 갈색인이다.

64:7.7 (727.4) 황인종은 계속해서 동 **아시아**의 중부 지역을 차지했다. 모두 여섯 유색 인종 가운데 그들은 가장 큰 무리로 살아남았다. 황인들이 이따금 종족 전쟁에 말려들기는 했지만 홍인 · 녹색인 · 주황인이 벌인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멸종하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이 세 종족은 그들의 적인 다른 종족들에게 마침내 거의 전멸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자체를 파괴했다.

64:7.8 (727.5) 다섯째 빙하가 **유럽**에서 남쪽으로 그리 멀리 뻗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악** 민족들이 북서쪽으로 이주하는 길이 어느 정도 열렸다. 얼음이 물러가자 몇몇 다른 작은 종족 집단과 함께, 청인(靑人)

은 **안돈** 부족들이 갔던 옛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옮겨 갔다. 그들은 연달아 인파를 이루어 **유럽**에 쳐들어갔고, 그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64:7.9 (727.6) **유럽**에서 그들은 초기에 공통으로 조상인 **안돈**의 **네안데르탈** 후손과 마주쳤다. 예전에 있던 이 **유럽**의 **네안데르탈**인은 빙하로 말미암아 남쪽과 동쪽으로 밀려갔고, 이처럼 **산깁** 부족들의 침공하는 사촌들을 속히 만나고 그들을 흡수할 위치에 있었다.

64:7.10 (727.7) 일반적으로, 그리고 첫째로, **산깁** 부족들은 초기에 평야에 살던 **안돈** 족속의 퇴보된 후손보다 더 영리했고, 대부분의 면에서 훨씬 우수했다. 이 **산깁** 부족들이 **네안데르탈** 종족과 섞인 것은 더 오래 된 종족을 즉시 개선되게 만들었다. 이 **산깁** 피의 주입, 특히 청인의 피는 **네안데르탈** 종족을 두드러지게 개선하였고, 이것은 동쪽으로부터 **유럽**을 휩쓸, 갈수록 더 영리한 부족들이 잇달아 파도처럼 밀려온 데서 나타났다.

64:7.11 (727.8) 뒤따르는 간빙기(間氷期)에, 이 새 **네안데르탈** 종족은 **잉글랜드**에서 인도까지 뻗었다. 고대의 **페르시아** 반도에 있던 청인의 나머지는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들, 주로 황인과 섞였고, 그 결과로 생긴 혼합 종족을 나중에 **아담**의 보라 종족이 얼마큼 개량하였으며, 이들은 현대의 **아랍** 사람, 거무스레한 살빛의 유목 부족으로서 지속해 왔다.

64:7.12 (728.1) 현대 민족들의 **산깁** 조상을 확인하려고 무슨 노력을 기울여도 나중에 **아담**의 피가 섞임으로, 종족의 혈통이 후일에 개량되었다는 것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64:7.13 (728.2) 우수한 종족들은 북쪽 기후, 곧 온대 기후를 찾았으며, 한편 주황 · 녹색 · 남색 종족들은 새로 높아진 육지 다리 위로, 연달아

아프리카로 몰려갔고, 그 다리는 서쪽으로 물러가는 지중해를 인도양에서 떼어냈다.

64:7.14 (728.3) 종족 기원의 중심에서 마지막으로 이주한 **산각** 종족은 남색인(藍色人)이었다. 녹색인이 **에집트**에서 주황인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체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을 무렵에, 해안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남쪽으로 흑인의 큰 집단 이동이 시작되었다. 나중에 신체가 튼튼한 이 남색인 종족들이 **에집트**에 넘쳤을 때, 그들은 순전히 인구의 위력으로 녹색인의 뿌리를 뽑아버렸다. 이 남인종은 주황인의 잔재와 녹색인 혈통의 상당수를 흡수했고, 어떤 남색인 부족들은 이 종족 혼합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개선되었다.

64:7.15 (728.4) 그래서 처음에는 주황인, 다음에 녹색인, 그 뒤에 남색인 (흑인)이, 더 후에는 남색인, 청인, 그리고 수정된 녹색인의 잡종 민족이 **에집트**를 정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담**이 도착하기 오래 전에, **유럽**의 청인과 **아라비아**의 혼합 종족은 남인종을 **에집트**로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멀리 남쪽으로 몰아냈다.

64:7.16 (728.5) **산각** 민족의 이동이 막을 내리자, 녹색인과 주황인 종족은 사라져 버렸고, 홍인은 북 **아메리카**, 황인은 동 **아시아**, 청인은 **유럽**을 지키고 있으며, 남인종은 **아프리카**로 이끌려 갔다. 인도는 혼합된 2차 **산각** 종족들을 품고 있으며, 홍인과 황인이 혼합된 갈색인은 **아시아** 해안에서 떨어진 섬들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우수한 잠재성을 가진 혼합 민족이 남 **아메리카**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더 순수한 **안돈** 족속은 **유럽**의 가장 북쪽 지역에서, 그리고 **아이스랜드**와 **그린랜드**와 북 **아메리카**의 동북부에서 산다.

64:7.17 (728.6) 빙하(氷河)가 가장 멀리 진행한 기간에, **안돈** 부족들의 맨 서쪽 가지는 바다로 거의 밀려가게 되었다. 그들은 오늘날의 **잉글랜드**

섬 남쪽의 좁고 길쭉한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여섯째이자 마지막 빙하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바다로 뛰어들도록 몬 것은 되풀이된 이 빙하의 진행에 관한 전통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바다로 모험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배를 만들고, 그들이 바라건대 무서운 얼음 침공이 없을까 싶은 새 땅을 찾아 나섰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아이스랜드**에, 더러는 **그린랜드**에 도착했지만, 대다수는 망망한 바다에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죽었다.

64:7.18 (728.7) 8만 년 조금 더 전에, 홍인이 북 **아메리카**의 북서쪽으로 들어간 뒤에 얼마 안 되어, 북극의 바다가 얼어붙고 **그린랜드**에서 지역 빙원(氷原)이 진행한 것은, **유란시아** 토착민의 이 **에스키모** 후손을 더 좋은 땅, 새 집을 찾도록 몰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그린랜드**를 북 **아메리카**의 동북부의 땅 덩어리로부터 떼어 낸 좁은 해협을 안전하게 건너서 성공했다. 그들은 홍인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뒤 약 2천 1백 년쯤 되어 그 대륙에 이르렀다. 그 뒤에 청인의 혼합된 혈통 가운데 더러가 서쪽으로 여행했고, 후일의 **에스키모**들과 섞였으며, 이 연합은 **에스키모** 부족들에게 조금 유익했다.

64:7.19 (728.8) 약 5천 년 전에 **헛슨** 만의 남동쪽 해안가에서, **인디안** 부족과 외로운 **에스키모** 무리가 어쩌다가 만나는 일이 생겼다. 이 두 부족은 서로 의사를 전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했지만, 금방 그들은 서로 결혼했고, 그 결과로 이 **에스키모**들은 결국 더 수가 많은 홍인에게 흡수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약 1천 년 전에 백인이 처음으로 대서양 해안에 어쩌다가 상륙할 때까지, 북 **아메리카** 홍인이 어느 다른 인간 혈통과 가진 유일한 접촉이다.

64:7.20 (729.1) 이 초기 시절의 투쟁은 용기와 용맹, 아니 영웅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초기 조상이 가졌던 건실하고 튼튼한 특성 가운데 많은 것이 후일의 종족들한테서 사라진 것을

우리는 모두 섭섭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진보하는 문명이 제공하는 많은 세련된 것의 가치를 이해하지만, 너희의 옛 조상들이 보인 훌륭한 내구력과 뛰어난 헌신이 사라진 것을 서운히 여기며, 이것은 때때로 위대하고 숭고한 정신에 가까웠다.

64:7.21 (729.2) **[유란시아에서 거주하는 한 생명 운반자가 발표했다.]**